

# 3월 넷째주 청소년부 가정예배 인도자 매뉴얼

<p><b>#예배준비</b></p>	<p>1)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정한다. (주일 저녁 8시 권장)                  2) 가정예배지를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준비한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일예배지 보기” 클릭!)                  3) 인도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형식은 변경할 수 있다.)</p>
	<p>1) <b>Ice Break : 예배 전 간단한 질문이나, 영상 하나를 보고 난 소감을 짧게 나눈다</b>                  영상을 보고 난 후 평소 우리 나라에 대해서 느끼고 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혹시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국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도 나누어 봅시다.</p> <p>2) <b>예배로의 부름 및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책 참조)</b>                  - 인도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p> <p>3) <b>찬 양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b>                  - 인도자의 멘트에 따라 찬양을 부르 고, 자연스럽게 합심기도로 넘어간다.                  ※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가능한 악기들을 활용한다.</p> <p>4) <b>합심기도 : 예배지에 있는 기도제목 등으로 인도자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한다.</b></p> <p>5) <b>성경봉독 : 가족 구성원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독해도 되고, 전체를 합독해도 된다.</b>                  - 인도자 : 1)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27절부터 34절까지 큰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p>
<p><b>#예배인도</b></p>	<p>6) <b>설 교</b>                  - 예배지의 관찰질문을 통해 본문을 먼저 들여다 본다.                  - 아래의 설교문을 참조하여 인도자가 말씀을 나눈다.</p> <p>대장장이 장인이 제자에게 말발굽을 하나 보여주며, 이 말 발굽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나중에 와서 보니, 제자가 만들어 놓은 100개의 말발굽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물으니, 원본 말발굽을 보고 하나를 만들고, 그 만든 것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 원본 말발굽과 100번째 말발굽은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때론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비슷한 것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다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원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누구 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의 자리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채워 넣는 것,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p> <p>두 번째로 참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벰전2:21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으 끼쳐 그 자취를 따로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p>

	<p>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자기 살길 찾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권력에 편승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과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원리와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할지도 모르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살길 마련해 놓는 것이 훨씬 현명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대적합시다. 적당히 타협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속삭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제자는 묵묵히 주님이 당하신 그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제자입니까? 이번 한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p>
<p><b>#예배인도</b></p>	<p><b>7) 생각나누기 : 설교 말씀을 듣고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b></p> <p>Q1. ‘고난을 받고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조. 마태복음 16:22)</p> <p>Q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와 ‘제자들’은 각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34절)</p> <p>Q3.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의 말로 표현해봅시다.</p>
	<p><b>8) 결단 및 적용</b></p> <p>1) 이번 한주 내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시다. (인도자는 결단과 적용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고, 다음번 예배 때에 점검해 주는 것도 좋다)</p> <p>2) 결단하고 적용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한다.</p> <p>모든 합심기도가 끝나고, 인도자가 <b>마무리 기도</b>로 정리한다.</p>
	<p><b>9) 주기도문</b></p> <p>‘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는 인도자의 멘트와 함께 다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한다.</p>
<p><b>#교제의 시간</b></p>	<p>1)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포옹,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의 소감을 나눈다.</p> <p>2) 오늘은 수고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설거지와 청소를 해보면 어떨까요? ^^</p>